



## LOTUS 조찬경연회 개최

# 실무 중심 교육과 소통의 장



경영대 교수와 각계 CEO 70여명이 참석, 성황리에 열린 지난 5월 20일 조찬경연회 축하 기념사진.

경영전문대학원(원장=이영면)에서는 다양한 업계 최고 경영자들의 강연을 통해 CEO들의 역량을 개발하는 LOTUS 조찬경연회를 개최하고 있다. 4월에 개강하여 오는 11월까지 매달 셋째 주 화요일에 개최되는 이 경연회는 이제까지의 진부한 최고경영자교육 과정을 벗어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경영이론 및 실무에 초점을 맞춘 강의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에 열린 제 2차 경연회에서는 김철순 전 개성공단 총소장이 '개성공단, 통일대박시대를 향한 교두보'라는 주제로 개성공업지구의 잠재가능성과 대북 관계 내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묻어나는 강

의를 통해 해당 주제에 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조찬시간을 겸한 경연회에서의 자유로운 대화로 각자의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경연회를 개최한 이영면 원장은 '글로벌 시대에 더 이상 실전과 분리된 학문은 설 땅이 없다'며 '현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 경영자의 통찰력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LOTUS 조찬경연회를 마련한 취지를 설명했다. 경영의 주요 이슈들을 각 분야 최고의 실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심층 분석하는 LOTUS 조찬경연회는 생생한 교육의 기회는 물론 CEO를 비롯한 참석자들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희 기자

### 지면안내

해외탐방 프로그램	2면
공인회계사반 장학 증서 수여	3면
UTD 교수 및 학생, 경영대 내방	4면
경영대 & 경영전문대학원 소식	5~6면
경영전문대학원 Family Day	7면
AFPK & 문화기획 연계전공 정보	8면
교환학생 · 중국인 유학생 인터뷰	9~10면
경영대 학생 인터뷰	11면
경영대 생활	12면

# Entrepreneurship 현장실습 Global Field Trip 시행



중국 나노미터 과학기술센터 관계자와 회의 후 기념사진 촬영장면.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4박 5일 동안 Entrepreneurship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중국 북경탐방으로 진행되었다.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수업과 연계되는 최초의 해외탐방 프로그램으로 시행 전부터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Entrepreneurship 주임교수인 이영달 교수와 학사운영실 김해덕과장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인원이 참석하였고 북경 현지에서 왕옥용(Global MBA)원우가 합류하여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한국에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았는데 모국을 방문한 원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2일차 오전에는 제일기획을 방문하여 중국 광고시장 현황에 대한 강연을 이태환 국장으로부터 들었다. 중국광고 시장의 키워드는 “다양성”이었다. 시청률이 1%만 넘어도 대박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이기에 광고주는 “어떤 프로그램 전후에 광고를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한다. 가장 높은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CCTV 8시 뉴스 전 광고인데 1년치를 한 번에 계약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 광고모델의 가격도 이미 한국을 능가하였는데 탑모델의 경우 한화로 20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한다.

2일차 오후에는 나노미터 과학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중국이 최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

졌다.

3일차 오전에는 북경대를 방문하여 캠퍼스 투어를 하였고 오후에는 칭화대 역사관을 방문하였다. 졸업 시즌이라 학위가 운을 입은 학생들과 가족들을 캠퍼스에서 쉽게 만날 수 있었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묻어 나왔다. 칭화대 역사관은 100주년을 기념하여 최근에 개관하였는데 현재 주석인 시진핑, 핵무기를 개발한 과학자 등 칭화대학이 배출한 걸출한 동문들의 기록과 사진을 보관하고 있어 그 위세가 대단하였다.

3일차 저녁에는 동국대학교 재중동문회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였다. 전임회장인 임영호회장이 “중국 내수시장 개척 및 현지 금융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셨는데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저녁 만찬에는 윤종필회장 이하 열 세분의 동문이 참석하여 중국 현지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박현석 7기 원우회 총무부장은 “이번 행사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재중동문회와 적극적인 교류를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4일차 오전에는 창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센터를 방문하였다. 그곳의 분위기는 창조경제를 표방하며 창업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창업부터 이윤발생까지 단계별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으며 특히, 해외에서 유학한

우수 인력이 자국으로(중국) 들어와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유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4일차 오후에는 현지 진출 동문기업(강태선회장)인 ㈜블랙야크를 방문하였다. ㈜블랙야크는 1998년 중국시장 진출 이래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였지만 박진배지사는 “비싼 가격과 한국 시장과 달리 봄업이 되지 않는 아웃도어 시장, 중국 토종 브랜드와의 힘겨운 경쟁 등 만만치 않은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 아웃도어를 강조하는 마케팅보다는 종합의류브랜드의 이미지로 중국 소비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더욱 유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이영달교수는 “최초로 시행한 해외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소중한 경험을 함께 공유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은 경우도 있다며 향후 해외탐방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더욱 치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완성도를 더욱 높여 가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방문단의 학생대표 역할을 수행한 강성룡원우(Executive MBA, 동서식품 푸드 마케팅팀장)는 “현지 방문 기업 섭외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해외탐방을 통해 다른 원우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으며, 교수님과과의 동행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회가 있다면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사운영실 김해덕 과장**



## 공인회계사반 장학증서 수여식, 합격을 위한 더 힘찬 발걸음

● 공인회계사A	
▶ 성적자격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지원내용	등록금 100%
▶ 지급대상	공인회계사 1차합격생
▶ 비고	1년 (2개 학기 지급)
● 공인회계사B	
▶ 성적자격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지원내용	수업료 70%
▶ 지급대상	공인회계사반 일반시험 성적결과에 따라 5명 선발
▶ 비고	CPA 준비생
● 공인회계사C	
▶ 성적자격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성적 2.0이상
▶ 지원내용	수업료 35%
▶ 지급대상	공인회계사반 일반시험 성적결과에 따라 20명 선발
▶ 비고	CPA 준비생

공인회계사반 장학제도. (단, 8학기 재학생의 경우 12학점도 가능함).

지난 5월 22일, 덕암세미나실에서 공인회계사반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었다. 공인회계사(Certified Public Accountant, 이하 CPA) 시험에 1차 합격한 재학생들의 축하와 더불어 CPA 시험을 준비하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주는

공인 회계사 준비반인, ‘동현제’ 일반 합격생들을 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1차 합격생들은 2차 시험 합격을 위한 각오를, 동현제 일반생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새겼다.

CPA 1차 합격생들은 두개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표 참조)으로 지원 받으며, 동현제 일반생들은 일반 성적에 따라 등록금 중 일부를 차등 감면받는다.

이번 장학증서 수혜자는 A장학의 경우 김재성(회계06), 나현(전자전기공학10), 송창민(회계07), 송태호(회계06), 이용협(회계07), 임지용(회계06), 최정환(회계09)이다.

B장학 수혜자는 김진환(경영13), 김태준(회계07), 박찬현(회계09), 조경하(경제13), 조원희(회계11)로 총 5명의 재학생이 장학의 영예를 누렸다.

C장학 수혜자는 구민균(회계10), 권영원(회계08), 김다솔(회계11), 박미영(회계11), 박우천(국제통상09), 송경섭(경영정보07), 송나경(경영13), 신원택(경영13), 안선우(경영13), 엄현섭(회계08), 용승환(경제08), 유태홍(경영13), 이슬기(경영13), 임동욱(회계09), 정호민(회계09), 전선우(경영09), 차정엽(경영09)이다. (가나다 순)

김성원 기자

## 공인회계사(CPA) 시험 설명회 개최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인회계사 설명회 장면.

2014년 상반기 공인회계사 시험 설명회가 5월 22일에 덕암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인회계사반인 동현제를 지도하고 있는 조광희 교수의 공인회계사의 역할 및 시험의 제도와 일정을 소개하고 교내 장학 및 수험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공

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과 진로를 탐색하는 1학년 학생들이 다수 참석하여 향후 진로 계획을 위한 정보를 얻었다. 설명회 후반부에는 공인회계사로 활동 중인 동문 선배로부터 합격 준비 방법에 대한 조언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동문 공인회계사의 현장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연과 토론까지 이어져 학생들에게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 설명회였다.

윤정희 기자

### 2014년도 CPA 1차 합격자 명단

강경호, 강보성, 강유선, 고일태, 공대휘, 권문현, 권순형, 김기중, 김바른원, 김범식, 김성덕, 김영덕, 김영종, 김유리, 김정우, 김종록, 김준영, 김진희, 김철일, 김형규, 박건화, 박경호, 박예지, 박인준, 서승연, 서준호, 송기윤, 송지영, 송창민, 양열, 양태민, 양현일, 윤정민, 윤형주, 이동훈, 이승길, 이재홍, 이정주, 이종희, 이호영, 이희창, 전장혁, 정예린, 정지혜, 조민영, 채택진, 최준석, 한규영, 허성지, 홍지현, 황상현, 황성재 (이상 52명).

## UTD 교수 및 학생, 경영대학 내방



타종 후 정각원 중 앞에서의 기념사진(왼쪽).  
식사 전 UTD 학생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UTD 복수학위 입학 예정자 조현근 군(위).

지난 5월 26일, UTD(University of Texas at Dallas)의 이승현 교수님과 학생 14명, 총 15명이 우리 경영대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동국대학교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는 UTD의 학생들에게 동국대학교를 소개 시켜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정이었다.

오전 11시 경 UTD 일행들이 본교에 도착하였다. 직후 간단한 인사 후 MBA CEO 룸으로 이동하여 학교 소개와 정육 부학장의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이후 11시 반 경 본교의 상징적인 장소인 도서관과 팔정도, 정각원 등의 코스로 학교 투어가 이루어졌다. UTD 학생들은 서울의 아름다운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도서관의 옥상공원의 경치에 감탄을

하였으며, 팔정도와 정각원 등 다른 대학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동국대학교만의 아름다운 불교 건물, 구조물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또한 12시 경에 항상 울리는 본교의 상징인 종을 UTD 학생들이 직접 쳐보는 체험도 하였다.

투어를 마치고 12시 반부터 14시까지 상록원에서 한국의 전통음식(코다리 조림과 불고기)을 주 메뉴로 하는 점심식사 시간을 가졌다. 식사 전 UTD 교환학생, 복수학위 입학예정자들이 참석하여 UTD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타지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 본교 학생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후 본교 교수님과 UTD 학생들,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입학 예정자들 간에, 자

유롭고 편한 분위기 속에서 화기에애한 식사 분위기가 연출 되었다. UTD 학생들이 특히 불고기 맛이 인상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점심식사 이후 UTD재학생과 본교 재학생들을 1대 1로 매칭을 시켜 준 후 자유로운 답소와 학교 구석구석을 구경 시켜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오후 4시, 아쉬움을 뒤로한 채 UTD 학생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졌다.

비록 5시간 안팎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모습의 동국대학교의 이미지를 남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안현준 기자

## 하계 현장실습 프로그램 실시

경영대학에서는 여름학기를 맞아 기업 연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의 전공 및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현장 이해와 원활한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것이 취지다. 학생들은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통하여 관심 분야의 직무 경험을 쌓아볼 수 있는 것은 물론, 학점 인정 및 기간

에 따른 실습 지원금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4학기 이상을 이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현장실습 프로그램에는 경영대학 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학 학생들이 참여 가능하다. 경영대학의 현장실습 대상 업체는 공공기업 및 산학협력단 (LINC) 연계기업을 포함하며,

약 100여 명의 인원을 선발한다. 현장실습은 6월 23일부터 8월 31일 중에 각 기업 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경영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dbs@dongguk.edu)로 접수하여야 한다. 일부 기업의 경우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다. 다양한 경험과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이번 현장실습이 많은 학생들에게 보람 있는 기회가 되리라 기대한다.

윤정희 기자

## 제22회 한경연 독서나눔 MBA 본교서 열려



우리나라의 경영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 연합 모임(이하 한경연)이 주최하는 22회 독서나눔 MBA가 지난 5월 24일 본교 MBA CEO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경연이 매월 학교를 돌아가면서 개최하

는 독서토론회와 CEO 초청 포럼이 함께 진행되었는데, 본원에서는 7,8기 회장단을 비롯하여 7명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1부 지정도서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읽

고 이동우 전임강사의 강연을 들었다. 매회 독서나눔 MBA를 이끌고 있는 이동우 강사의 해박하고 전문적인 해설이 인상적이었다.

2부에서는 세명대 한방식품영양학부 고성권 교수의 <고박사의 약초이야기>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우리의 산과 들에 나는 약초에 대한 민간 설화와 각 약초에 대한 구체적인 약효와 효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독서나눔 MBA는 한경연의 공식모임으로, MBA에 재학하거나 졸업자라면 누구에게나 문호가 열려있다.

## 2학기 강의 시간표 원생들의 의견수렴

우리 MBA에서는 원우들을 대상으로 2014년 2학기 시간표 편성에 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같은 의견수렴 아이디어는 민주적이고 질 높은 MBA 학사운영과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로 평가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번 의견수렴 행사는 학사운영실 주관으로 PD교수와 전공 교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시작하여 요일별 시간표를 작성했고, 이렇게 마련된 임시안은 원우들에게 제공되었다. 원우들은 원우회를 중심으로 과목별, 교수별 선호도 조사를 통해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취합, 정

리된 의견은 학사운영실에 전달되었고, 학사운영실은 MBA운영위원회를 통해 2014년 2학기 커리큘럼과 학사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MBA 재학생들은 학교 측의 의견수렴 방안을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원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제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한편, 지난 6월 2일 7기 원우회 박현석 총무는 이 같은 원우들의 뜻과 학습 환경 개선에 대한 요청사항을 전달했고, 학사운영실에서는 의견수렴 취지를 살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준 바 있다.

## 가을 입학예정자를 위한 Pre MBA School 개최

6월 14일 가을 입학 예정자들을 위한 제 1차 Pre MBA School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MBA CEO룸에서 원장님의 인사, 과정 교수의 소개를 시작으로 8기 원우회, 학사운영에 대한 안내 순으로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취지는 MBA PD 교수와 함께 과정별 도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금번 MBA 가을 입학예정자는 총 33명이다.

## MBA 총원우회 출범기념 모교사랑 걷기대회 열려

지난 5월 MBA 총원우회(회장=양완모, MBA 1기)가 공식 발족된 것을 기념하여 6월 14일 남산 걷기대회가 열렸다.

총원우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본교 불상(코끼리상) 앞에 집합하여 10시 30분부터 남산 등반로를 따라 서울 N타워까지 올라갔다 하산한 뒤 상록원 채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였다. 대략 4시간 가량 소요된 이날 행사에는 졸업생과 재학생, 교직원 등 약 75명 이 참석하였으며 행운권 추첨, N타워에서의 즉석사진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양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MBA의 활성화를 위한 총원우회의 큰 발걸음을 축하하고 기원하는 뜻 깊은 자리에 많은 분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린다. 더욱 발전하는 MBA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역설했다.

5면 기사 정리=김기섭 기자

## 한국제약협회, 산학협력 협약 체결



왼쪽으로부터 이영면 원장, 권경희 교수(Pharm-MBA PD), 김희옥 총장, 이경호 회장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원장=이영면)과 한국제약협회(회장=이경호)가 학술교류 등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지난 5월 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학과 협회는 ‘Pharm-MBA’ 과정 인력 파견 및 추천에 따른 재정지원과 공동연구는 물론 학술교류, 기타 교류 협력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MOU를 통해 동국대 ‘Pharm-MBA’에 입학하는 제약협회 회원사 임직원에게는 장학금 감면의 특전이 부여된다.

한편 동국대 ‘Pharm-MBA’ 과정은 국내 최초로 의·약학과 경영이 접목된 전문 학위과정으로 자연계 전공자는 경영학적 지식,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의·약학 산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도총락 동문, 기업가정신 대상 수상



한국벤처창업학회로부터 기업가정신 대상을 받은 도총락 회장(사진 오른쪽)

지난 4월 25일 본교 MBA 6기 동문인 도총락 회장(도총홀딩스 대표)이 (사)한국벤처창업학회(회장 김도현) 춘계 학술대

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업가정신 대상 수상을 받았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주는 상장으로, 그간 도총락 회장의 적극적이고 모범적인 기업경영의 성과와 공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한편 도 회장의 수상 축하연은 5월 15일 학교 부근의 한 식당에서 열렸다. 본교 이재환, 이영달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스승의 날’ 기념식을 겸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국대 MBA 내 기업가 모임을 조직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이 오갔다.

## 이준우 원생 봉사상수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수상한 이준우 원생(사진 오른쪽)

MBA에 재학중인 7기 이준우 원생(글로벌경영 과정)이 부산광역시장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그간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 점을 인정받아 봉사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상은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소속으로 수상했기에 더 값진 것으로 평가된다.

## 불교리더십연구회, 비즈인문학 읽기모임 발족 활발한 활동 기대



MBA내 동아리 모임인 불교리더십연구회와 동국대 비즈인문학모임이 지난 4월 발족을 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불교리더십연구회는 리더십 MBA 전공자를 중심으로 지난 4월 11일 첫 모임을 갖고 본격적으로 불교리더십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첫 모임에서 연구회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김범년(리더십 전공) 회장은 “이 스터디를

통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자”고 제안했고, 최병순 리더십과정 PD교수는 연구회의 발족을 축하하는 메시지에서 “큰 성취 이룩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보내왔다.

연구회는 1차적으로 리더십이론을 정리한 후 석가모니 부처의 삶과 생애, 그리고 불교 경전텍스트 강독을 통해 불교 리더십의 스토리와 사례를 발굴할 예정

이다. 이를 통해 정기 세미나를 열어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족한 불교리더십연구회는 한국형리더십의 매카를 표방한 동국대 리더십과정의 첫 연구 작업이면서 자비경영, 자비정신을 모토로 하는 본 MBA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회는 매월 1,3주 목요일 저녁 7시 본원 204호 세미나실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와 함께 본 MBA에서는 원우들을 중심으로 동국대 비즈인문학 읽기 모임(이하 동비인)을 발족하고 지금까지 세 번의 모임을 가졌다. 동비인은 인문고전을 읽고 토론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인문학적 통찰을 얻기 위한 모임으로, 첫 모임에서는 방향설정과 함께 도서를 선정했고, 초대 유사로 최형미 원생(리더십 전공)을 추대했다.

학기 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방학 기간에는 한 달에 두 번 모이며, 현재 공식 참석인원은 여덟 명이다. 인문고전을 함께 읽으며 통찰력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204호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6면 기사 정리=김기섭 기자

# 원우회 주최 2014 MBA 가족초청 행사



경영전문대학원 가족 초청행사 ‘아름다운 동행’ 기념 촬영(위쪽),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에게 행사리플렛 전달 (아래 왼쪽), 특강경청(아래 가운데), 재학생 및 동문, 그리고 함께한 가족, 복지관 어르신의 즐거운 오찬 사진 (아래 오른쪽).

경영전문대학원은 지난 7월 5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가족초청 행사 ‘경영전문대학원 Family Day’를 개최했다. 이번 가족초청 행사에는 경영전문대학원 입학예정자, 재학생,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했으며 특강, 캠퍼스 투어, 교수들과 함께 하는 점심 식사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영면 경영전문대학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30년의 전통(경영대학원 포함)을 지닌 경영전문대학원이 국제경영대학발전협의회(AACSB)로부터 경영교육 국제인증 받는 등 변화를 선도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5천 명의 동문이 사회 곳곳에서 동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니 재학 중인 가족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응원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재환 교수는 특강에서 ‘삶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올바른 자녀교육법, 직장생활 성공의 비결, 가족의 중요성 등에 대해 설

명하였고, KBS 이정민 아나운서(광고홍보99)도 특강을 열고 ‘세련된 말하기’와 ‘프로로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하였다.

경영전문대학원 동문 가족들은 캠퍼스 투어를 통해 우리대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대학의 상징적 장소인 만해시비, 명진관, 100주년기념비, 중앙도서관 옥상공원, 남산 산책로, 팔정도, 정각원 등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날의 행사에는 경영전문대학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의 어르신 40분도 초청되어 뜻 깊은 시간을 함께 했다. 특히, 재학생이 모은 성금 100만원과 ㈜에이텍스, ㈜행운택시, ㈜제이엔푸드, ㈜새롭코스메틱, TAYLOR 등 5개 기업에서 후원한 물품을 옥수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프로그램도 진행되어 나눔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였다.

행사를 기획한 강봉석 원우회 장

(Leadership MBA 8기)은 MBA 가족과 소외된 이웃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일환으로 행사를 준비하였으며, ‘동국’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이웃이 하나되어 건학이념인 “자비를 중만케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7월 21일 학교를 다시 방문한 물품 후원 기업 대표들에게 경영전문대학원장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옥수종합사회복지관장 상덕스님도 참석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에이텍스 김해룡대표는 “제 2회 행사 때는 후원의 규모를 더욱 늘려서 더욱 많은 분들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원장은 “내년에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재학생과 동문, 소외된 이웃이 모두가 하나되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학사운영실 김해덕 과장

## 금융권을 바라본다면, AFPK부터 탄탄하게

지난 4월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사회 비용 절감과 스펙 타파를 목표로 금융 3종 자격증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증을 공부하는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당황스럽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취업까지 여유가 있는 학부생들에게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현재 금융 3종보다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비싸며 더욱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자격증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그 자격증들 가운데 AFPK(Associate Financial Planner Korea)는 발판 역할을 하는 자격증이다.

AFPK 자격인증은 재무설계업무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서 국내 전문 자격에 해당한다. 인종, 국적 성별, 종교, 나이, 질병, 장애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된 거주지를 둔 사람이며 한국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가 정하는 자격인증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인정받은 자가 AFPK 자격인증을 받을 수 있다.

AFPK 자격인증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AFPK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

과정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응시 원서 접수 전까지 수료한 사람의 한해서만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AFPK 시험은 모듈1과 모듈2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듈 1에서는 5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항 수는 110문제이다. 모듈 2에서는 3과목으로 구성되며 총 90문제이다. 접수는 100점 만점에 문항당 0.5점이며, 모듈 1과 모듈 2전체 시험에서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합격에 해당한다. 단, 각 과목은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더불어 AFPK는 부분합격이 가능하다. 하나의 모듈에 대하여 평균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경우, 단 해당 모듈의 시험 과목별로 100분의 40이상을 득점할 경우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AFPK 자격인증에서는 윤리성이 요구된다. 즉 한국 FPSB가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윤리서약을 끝으로 자격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AFPK는 국제재무설계인 CFP(Certified Financial Planner)의 입문자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CFP 자격자가 수행하는 종합 개인재무설계 업무의 1차 관문인 고객과

의 상담, 자료수집, 고객의 재무상태 분석 및 평가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이다. 그러므로 이를 유념하여 공부를 계획한다면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게 된다.

AFPK는 자신의 전문지식과 노력에 따라 단기간에 획득 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또한 시중에 전문적인 책과 체계적인 인터넷 강의들이 다양하다는 점이 유용하다. 학부생일 경우 학업과 병행하거나 방학을 활용하여 짧게는 30일 동안 준비하고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해 교육기관별로 평균 합격률은 26.7%로 나타났다. 동국대학교의 AFPK 합격자는 (2012부터 2013년 상반기 기준) 총 440명이며, 이 중 경영대 학우들의 합격자는 108명이다. 대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만큼 동국대 학우들의 AFPK 자격인증 소식도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다.

AFPK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AFPK 한국FPSB ([www.fpsbkorea.org/AFPK/AFPK\\_QC.asp](http://www.fpsbkorea.org/AFPK/AFPK_QC.asp))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김은영 기자

##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문화기획 연계전공

다양한 전공 수업 통해 문화 배워, 철학적 접근 위해 많은 노력 필요

바야흐로 문화 산업이 각광받는 시대다. 많은 가수들이 월드 투어를 기획할 정도로 K-pop의 인기가 높아졌고, 드라마의 해외 성공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음식문화와 관광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례해 문화 산업에 관심을 갖는 경영대생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교 경영대 커리큘럼 안에서는 문화 산업과 관련한 심도 있는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 문화 산업에 관한 심도 있는 내용은 문화기획 연계전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문화기획 연계전공은 문화산업 및 문화정책에 있어서 문화콘텐츠의 생산과 창출을 리드할 수 있는 '문화기획자(cultural planner)'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연계전공의 특성상 문화기획 전공

수업 뿐 아니라 철학과, 사회학과, 광고홍보학과 등 다양한 전공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문화기획 연계전공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강윤구(경영 08) 학생은 "다양한 전공과목에서 개설되는 수업을 듣지만 문화라는 큰 틀을 두고 들으니 각 수업마다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다"며 "철학과 수업에서 논의한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술대학 수업에서 얻거나 하는 경험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편 "철학과나 사회학과 같은 전공의 수업 내용을 따라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화기획 연계전공은 총 36학점(기초 18/전문 18)을 이수해야 한다. 문화기획 연계전공 커리큘럼에는 경영학과 전

공필수 수업(마케팅원론, 경영전략/경영정보론 중 택 1)이 포함되어 있어 다른 과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문화학술원(☎02-2260-8644~5 / <http://culture.dongguk.edu>)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연계전공이란?

이수 구분은 복수전공과 같다. 다만 단독으로 과가 설립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있는 두 개 이상의 학과를 연계하여 이루어진 학과다. 연계전공 이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졸업이수요건 등은 스스로 찾아보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기 기자



## 글로벌 세계로의 첫걸음, 교환학생



(위) 송혜민 학생의 교환학생 생활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룸메이트 동기와 함께  
(왼쪽) 알 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 대학교 앞에서 현지 친구들과 함께 교환학생 시작을 기념하며 (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가 송혜민 학생)

대학에 입학하면 선배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경험을 쌓아라’, ‘취업하기 전에 여행 다녀와라.’ 이는 다양한 경험을 쌓아 자신의 적성을 찾고 또 그 경험을 무기로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또 사회에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대학생 때 여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모두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조언일 텐데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이 때 이것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환학생’ 이 아닐까?

요즘 주변에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기 위해 교환학생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마침 학기가 끝나고 잠시 접어두었던 교환학생 꿈을 다시금 꾸고 있을 학생들을 위해 2014 학년도 1학기 카자흐스탄 국립대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다녀온 송혜민(경영12) 학우를 만나보았다

###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영학과 12학번 송혜민입니다. 제가 교환학생을 다녀온 국가는 카자흐스탄이고 공부했던 대학교는 알 파라비 카자흐스탄 국립대학교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입니다. 카자흐스탄 대학교에서는 러시아어, 러시아 역사, 문학, 카자흐어 및 중앙아시아 지역학 등 다양한 과목을 배우고 왔습니다.

### 2) 교환학생을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작년에 중국으로의 해외 학술 탐방 기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때 상해 푸단대

학, ERP CHINA R&D CENTER, 소주 공업원구 물류센터 견학과 동시에 백두산 등반, 고구려 및 중국 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지인들의 언어, 건축양식, 생활상 등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생각했던 중국에 대해 좀 더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습니다.

낮선 국가에서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만날수록 한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한국 밖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쉽게 해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환학생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3)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면 주변에서 흔히 영어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나 유럽 등 영어권이 아닌 국가에 가서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기보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국가로 향하여 그곳의 생활상을 경험하면서 저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 기회로 삼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알아보던 중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개발도상국이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그 영향력이 막강한 국가로서, 국토의 크기는 세계 9위이며 풍부한 광물 자원과 중동지역에 버금가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이 매장된 카스피 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카

자흐스탄의 지정학적 위치는 카자흐스탄이 보유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원주민이었던 카자흐 사람들과 슬라브족인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고려인 등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곳에서 바로 제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할 기회가 많을 것을 확신했고, 결국 망설임 없이 카자흐스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 4) 교환학생 생활,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외국인 친구들과 교류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생활하는 기숙사와 대학에는 카자흐스탄 현지 친구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친구들과 자주 교류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각국의 음식도 나눠 먹으며 쇼핑, 산책 등 여가생활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이 모여서 생활하다 보니 가끔 대화중에 러시아어와 영어 및 한국어를 저도 모르게 섞어 쓰게 되는 웃기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춤과 노래 및 음식과 같은 한국의 문화도 소개해주고 한국어 교육봉사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쉽게 만나기 힘든 나라의 외국 친구들과 교류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 9면에서 이어집니다.

5) 타지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역시 외국에서 생활하는 데 가장 힘든 것은 언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어서 언어에서 어려움이 상당한 편입니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도 쉬운 수준의 영어조차도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 손에 꼽기 때문에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사용하지 못하면 카자흐스탄의 생활과 공부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어를 배움에 따라 점차 해결되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오신다면 훨씬 적응하는데 편할 것 같습니다.

6) 교환학생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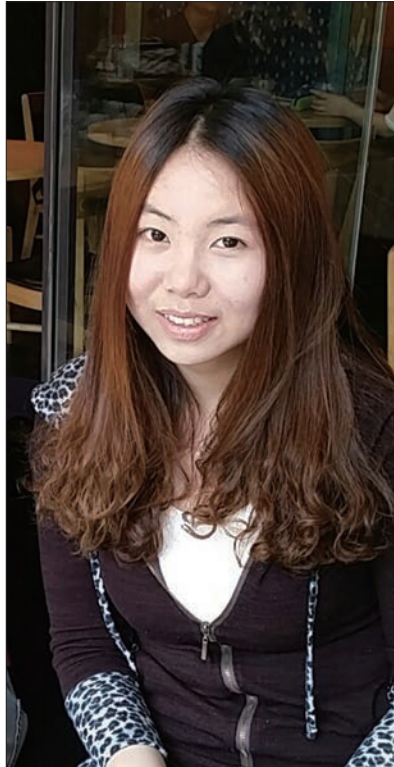
송혜민 학우의 교환학생 생활에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준 룸메이트 동기와 함께 생활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그 나라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오는 것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언어의 수준에 따라서 반이 나뉘져 언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반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언어능력은 현지 생활 전반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언어를 미리 배우야 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우리나라와 똑같은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카자흐스탄은 우리와 같은 아시아인이지만 문화적, 관습적으로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에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망스러운 점도 분명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그 나라의 문화이기에 이를 감안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계획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뚜렷한 목표 없이 교환학생 생활을 시작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경험과 기회, 소중한 시간들이 손가락 사이에서 하염없이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순식간에 흘러가버릴 것입니다. 부디 한국을 떠나기 전에 많은 고민을 거쳐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가서 목표를 성취하며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조윤재 기자

## 청운의 꿈을 안고 한국으로 날아오르다



중국인 유학생 조아천(경영12) 학생

“안녕하세요.”

이른 아침이었지만 조아천 학우(경영학과 12학번)의 얼굴에는 생기와 미소가 넘쳤다. 경영대학 앞 카페 보니에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었다. 한국어로 인터뷰가 진행되었음에도 막힘없이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그녀의 한국과 한국어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유학을 결심했던 당시를 묻자 그녀는 잠시 추억에 빠져 있다 이윽고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덕에 먼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사촌오빠가 조아천 학우에게 유학을 권유했고,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것을 권하였다. 이에 조아천 학우는 남들에 비해 의사결정을 결단력 있게 할 수 있었다. 한국 유학을 결심했을 당시, 한국 드라마 및 아이들에 대한 심대들의 관심이 절정에 이르던 시절이라 친구들의 부러움도 샅다고 했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 각 대학별로 필요한 입학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서류들을 준비했다. 그렇게 그녀는 고국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찾아 한국으로 왔다.

처음에는 한국의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다. 생활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 모두가 전혀 다른 환경으로 유학을 떠났기 때문이다. 매일같이 먹는 음식의 문화 차이가 무엇보다 컸다. 향신료가 강한 중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어 한국 음식을 먹는 데 ‘밍밍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식사가 즐겁지만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계속 접하다 보니 한국 음식 또한 고국의 음식처럼 입에 맞기 시작했다. 유학 초기에는 언어문제 또한 힘들고 외롭게 했다. 언어 공부는 현지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했던 그녀는 한국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다.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며 회화 실력을 늘려나갔다. 3개월이 지나자 의사소통에 문제가 사라졌고 1년 6개월 후엔 한국어능력시험 고급자격을 획득할 정도로 한국어 사용에 능숙해졌다.

이후 그녀는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지원하여 학교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문화의 이해’라는 중국어 강의의 가장 감명 깊게 들었다. 한국의 문화, 역사, 정치 등 한국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의 저변을 넓히는 수업이었는데, 중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전용 수업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매일같이 한국어만 사용하다 오랜만에 고국의 언어를 들으니 도리어 익숙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에는 ‘기술혁신경영’을 가장 흥미롭게 수강한다고 한다. 영화 찍는 기술, 냉장고를 제작하는 기술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배우다 보니 참신하고 재미있게 수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차 무엇을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는 당당히 ‘유학’이란 말로 답했다. 그녀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는 게 신기하고 재미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한국이 아닌 또 다른 나라에서의 유학을 준비 중에 있으며,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는 고국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고 했다.

“친구를 만난 것처럼 즐겁고 편안했어요.”

먼저 인사를 건네는 그녀의 친절함이 새롭게 다가왔다.

박준용, 조윤재 기자

# 위험에 대한 보답은 언제나 돌아온다

도전에 대한 실패는 약, 성공은 자신감



여러 대외활동 및 사업을 통해 자신만의 스토리를 구축한 이창우(경영09) 학생.

요즘 많은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력’란에 한 줄이라도 더 적기 위해 다양한 공모전과 대외활동, 자격증 공부에 집중한다.

하지만 단순히 스펙만을 쌓기 위한 활동들은 취업은 물론 인생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스펙을 쌓는데도 자신만의 신념과 목적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모습을 이창우(경영 09) 학생으로부터 발견했다.

법정모니터링 활동의 일환으로 동부지방법원의 국정감사에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파티 플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한 국전력공사 서포터즈로 일했으며, 기업은행의 금융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또한 지난해를 고구마 장사를 시작해 2호점까지 냈던 전직 CEO다.

열핏 보기에 연관성이 전혀 없는 듯한 활동들을 해온 이창우 학생은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었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남들보다 뛰어난 실행력을 지니고

있다.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 직접 저자를 만나러 가기도 했다. 고구마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무작정 지방에 내려가 직접 발로 뛰며 하나하나 배워나갔다. 그는 “안 되는 일은 없다. 해 보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한 그에게도 두려움은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잘 된 것만 보는데 사실 잘 된 것보다 잘 안 된 것이 훨씬 더 많다”며 “주변 친구들이 학점관리를 하고 영어 공부, 자격증 공부에 매달릴 때 나는 휴학을 하고 고구마 장사를 시작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맞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들을 따라하는 삶은 내 삶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 결과 지금의 순간까지 올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잊고 사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한

다. 또한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도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을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법칙들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드물다. 나 역시 평범한 사람이기에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들을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그러한 것들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위험은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리고 위험 뒤에는 항상 그에 따른 보답이 존재한다. 그 보답을 한 번 얻으면 두 번, 세 번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된다. 많은 학생들도 지금부터라도 성공한 사람들의 법칙들을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도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 그는 고구마 장사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창업을 준비 중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주최하는 청년사업 프로젝트를 통해 요식업계에 도전장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도전이 결실을 맺을 날이 기대된다.

김은영, 임상기 기자

## 이제는 말 할 수 있다!

### 타 과 학생들이 본 경영대 학생들 이모저모

다른 단과대 학생들의 눈에는 우리 경영대학이 어떻게 비춰지고, 경영대학에 대해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경영대학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대답

**정보통신전자공학과 최OO** : 아~ 과 좋네.

**가정교육과 이OO** :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고, 과수업에는 팀플과 영어 발표가 많아 짜증나지만 이를 통해 실력이 많이 늘어 취업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김OO** : 경영하면 CEO, 문과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건설환경공학과 서OO** : 기업가 같은 느낌 나고, 자유분방하며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다.

**멀티미디어공학과 원OO** : 일단 사람이 많고, 문과에서의 엘리트 과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치즈 인 더 트랩(다양한 인간군상을 배경으로 한 네이버 웹툰의 제목)

#### 약간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대답

**기계공학과 김OO** : 문과 판 기계과 이자 취업강패라는 느낌이 듭니다.

**화학신소재공학부 최OO** : 문과 중에서 제일 좋은 학과이지만, 재벌가의 자식들 아니면 어디로 취직을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교육학과 김OO** : 기업의 임원이 되거나 개인 사업을 할 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학과이며, 모든 일을 경제적 혹은 숫자로 판단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경영대 학우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아래의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www.facebook.com/dbsnews

**항공서비스학과 이OO** : 수학을 잘할 것 같고, 사회에 나가서 돈도 잘 벌 것 같습니다. 훈남 일 것 같고 청남방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 범상치 않은, 남다른 대답

**영어영문학과 박OO** : 경영학과는 자신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보니 그 체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 개개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냥 상류층이나 기득권의 학문정도로 생각합니다.

**미술학과 송OO** : 회사, 기업 경영을 하기에 앞서 자기 경영을 먼저 배워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스스로도 경영을 못한다면 어떠한 경영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경영의 기본중의 기본은 자기경영인데, 경영학과에서는 자기스스로에 대한 경영방법을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을 인터뷰해서 그런지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이중에서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대답들도 있는 반면, 예상치 못한 대답도 많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학생들의 대답, 특히 미술학과 송OO양의 대답은 저 자신스스로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대답이었습니다.

정리=안현준 기자

## 경영대 Fashionista



박정운 (경영10)

점프수트 쇼핑물 '나와 꽃' 43,000원  
팔찌 쇼핑물 '나와 꽃' 10,000원  
클러치 블랙마틴싯봉 99,000원  
선글라스 비비안웨스트우드 180,000원

경영대학 패셔니스타 그 4번째 모델 박정운 양은 다가올 여름방학을 위해 학우들에게 바캉스 룩을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여름엔 그저 시원한 옷이 제일인 것 같아요. 올 여름은 프린트가 많이 들어간 옷이 유행한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입어보았어요. 평소 옷을 입는 스타일은 꾸미기보다는 편안한 옷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마보다는 바지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지가 예쁜 옷 가게를 찾게 돼요. 요즘에는 거의 인터넷쇼핑으로 옷을 사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자주 찾는 쇼핑물의 제품이에요. 주로 스키니 진을 많이 입는데 요즘은 스키니 진보다는 레깅스 진이 유행인 것 같아요. 저도 신체 결점을 커버하는 스타일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상체가 하체에 비해 좀 살집이 있는 편이라 상의가 좀 더 큰 옷을 입어요. 옷도 편하게 입지만 신발도 구두보다는 운동화나 슬립은 또는 로퍼처럼 낮은 것을 즐겨 신어요. 오히려 이런 신발이 자연스럽게 더 예쁘기도 하고 실용적이에요. 언덕이 많은 동국대는 아무래도 운동화죠. 모두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신영은 기자

## 2014년도 DBS Newsletter 2기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2014년도 Dongguk Business School Newsletter의 2기 기자단이 출범하였습니다.

총 9명의 경영대학 학생들이 기자로 활동할 예정이며, 기자들 명단은 다음

과 같습니다.

노창훈(10학번), 조운재(12학번), 윤정희(12학번), 김은영(12학번), 진예지(12학번), 이미소(12학번), 김도원(14학번), 최호정(14학번), 한경석(14학번) 입니다.